[특파원칼럼] 미국 大選과 주한미군 감축

지난주 워싱턴 정가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한반도의 안전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였다. 한국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과거사 처리문제에 쏠려 있는 동안, 미국의 여야는 연일 북한의 위협을 우려하고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마치 '한국 감싸기' 경쟁이라도 벌어진 듯했다. 논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난주 초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7만명의 해외주둔 미군을 10년 내에 귀국시킨다'는 성명은 한국 입장에서 '뉴스'가 아니었다. 한·미 양국이 이미 주한미군 감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협상 중인 마당에, '냉전 이후 상황에 맞게 전 세계 미군을 재배치한다'는 원론을 듣는 것은 이미 중간쯤 읽고 있는 책의 서문을 다시 읽는 격이었다.

부시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국무부와 국방부 관리들이 외국기자들을 상대로 배경설명회를 열었다. '비록 몸은 떠나도 마음만은 변함없다'는 오래된 유행가 가사처럼 듣고 또 들은 이야기였다. 한국 기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쓸 이유가 없는 싱거운 내용이었다. 사실 부시 대통령의 발표는 유권자들에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위험지역에 오래 두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선용 상품'이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경제보다 안보가 더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선거다.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존 케리 후보는 '강력한 국가안보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정치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바로 이런 기류를 타고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문제가 미국 국내정치의 대기권으로 진입했을 때는, 초점이 '세계'가 아닌 '한반도'로 맞춰져 있었다. 이라크 주권이양 이후 이라크 문제가 미국인들로부터 한발 멀어진 후, 남은 위협은 북핵문제인 것이다.

케리 후보는 즉시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며, 감축 시기의 부적절성을 들고 나왔다. 케리는 불과 2주일 전에, 자신이 당선되면 한반도와 유럽을 포함한 해외주둔 미군을 과감하게 감축하겠노라고 했었다.

1주일 내내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 민주당과 언론이 '한반도 상황이 저렇게 위험한데 어쩌자고 지금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거냐'고 비판하면, 부시 행정부는 '병력을 줄여도 한·미 연합방위 능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장담했다. 표현은 다를지언정 미국의 여야가 다투어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반미감정과 반한감정을 주고받으며 결코 편치 못했던 최근 몇 년간의 한·미관계를 생각하면 낯설기는 해도 차라리 다행스러운 광경이었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부시와 케리가 '강력하고 유능한 군 통수권자' 이미지를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한, 한국의 안보는 오는 11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앞으로 어느 마당에 끌려나가 널을 뛸지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다. 물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못하겠느냐, 대

선 끝나고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 고 접어둘 수도 있다. 그러나 케리 후보도 해외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은 부시와 다를 바 없다.

문제는 국제정치 상황과 외교관계가 변하면 군사관계도 변화하듯, 군사관계의 변화는 다시 외교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 내의 주한미군 감축 논쟁을 대선용이라고 한가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 강인선 (워싱턴 특파원)

<출처 : 조선일보 특파원칼럼 2004. 8. 24>